

따옴표 기사제목과 인용에 대한 인식차이*

윤 재 학
(경희대학교)

1. 서론

IMF 시기에 박세리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보여주는 활약상은 슬픔에 잠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안을 주는 낭보였다. 중앙일보는 한 동안 1면에 박세리 선수의 골프일기를 연재하였다. 필자는 이 방식이 뉴스매체로서 주요 일간지의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루키시절의 박세리 선수가 골프연습과 현지적응에 시간이 모자랄 판에 신문에 일기를 연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에 대필자의 작품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대필자의 존재가 상당부분 관행으로 여겨지는 회고록이나 자서전의 장르가 아닌, 한국의 대표적인 일간신문에서 대필자의 원고를 1면에 연재한다는 점에서 신문의 사실보도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쉽사리 저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한국의 신문들이 진실성에 입각한 권위나 신뢰도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따옴표 제목의 만연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주요 신문에서 따옴표 제목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며 이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믿음을 다수의 독자와 언론중

* 본 연구는 2008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결과임.

사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편집위원 박금자는 한국일보(2001년 11월 22일)와 『기자협회보(2002년 4월)』에 각각 '따옴표를 읽으십시오', '인용의 남용과 악용'이라는 제목으로, 언론학자 이재경과 주형일은 중앙일보(2002년 4월 9일)와 『참언론 참소리 227(2004년 9월)』에서 각각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따옴표 기사는 사라져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신문에서 따옴표 제목의 만연으로 야기되는 정보의 왜곡과 언론의 무책임성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이 참여하는 인터넷 매체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시각이 자주 발견되어 이제는 전문가적 우려를 넘어 일반 독자들의 시각에서도 인용부호의 남용이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상에서 제기된 따옴표 제목의 만연이 (가)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한국적인 현상인지, (나) 과거와 달리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다) 인용표현의 사실성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고찰하여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도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공정정보도

공정정보도는 신문의 생명이다. 원칙적으로 기자는 사실보도의 책임은 있으나 공정정보도의 책임은 없다. 다시 말해 불공정 보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정하지 않은 신문은 독자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기자들은 공정정보도에 대한 학습을 신문학 기초에서부터 배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Smith & O'Connell (1996:142)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초보기자라도 보도된 사안에 대한 상대편 당사자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보자들이 어떤 공장이 호수를 오염시키

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면, 기사는 공장관계자들을 취재하여 그들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안다. 기자들은 제보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거나 잘못된 증거를 통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기자들은 상대방 견해를 확인하는 작업이 법률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독자들은 신문사가 최대한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들이 공정성에 있어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많은 독자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에는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2009년 9월 19일자 <한겨레신문>은 "위장전입 잦대 '조·중·동의 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참여정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 밝혀졌을 때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주요 신문들이 현 정부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자 사소한 흠집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다거나,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업무능력과 현안에 대한 견해가 중요하며, 위장전입 하나 때문에 유능한 공직 후보자가 임명이 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능력 우선주의로 돌변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2.2 제목의 중요성

텍스트에서 제목은 장르에 따라 학술논문과 같이 객관적 사실에 관한 주제일 경우 내용을 요약하여 해당 텍스트가 독자가 찾는 주제에 부합하는 지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시와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의 경우 내용의 직접적 요

약보다는 상징성이 뛰어난 간접적인 어휘를 선택하여 수사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신문기사에서 제목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주제가 일반 적이므로 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신문매체의 특성상 기사제 목은 독자의 관심을 일으켜 본문을 읽게 하는 기능과(Baskette, Sissors, & Brooks, 1986), 기사내용을 읽는 독자에게 언론사의 논조에 동조하게 하려는 소위 틀짓기 효과(a framing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Geer & Kahn, 1993; Price, Tewksbury & Powers, 1997; 이준웅 외, 2007:68에서 재인용). 특히 많은 정보와 짧은 시간에 쫓기는 현대 사회의 현상으로서 신문에서 제목 만을 읽는 '제목 독자'의 등장으로 기사제목이 여론형성에 차지하는 중요성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여훈 2004:2, 김병홍 2007: 38에서 재인 용). 김병홍(2007)에서는 설득전략으로서 신문기사 제목을 언어학적, 의미적 맥락에서 고찰한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기사제목의 중요성과 더불어 따옴표 제목의 만연이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 이 되는 이유는 신문들이 직접인용을 통해 기사 내용을 선정적으로 광고하거 나, 자사의 논조를 주장하기 위해 객관성을 위장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본문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동규, 2004; 박천일, 2004; 이 상길, 2003; 최영재, 2004; 이준웅 외, 2007:68에서 재인용).

2.3 제목의 왜곡사례

공정보도를 저해하는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신문사의 자원부 족에 따른 심층취재의 제한이다. 다양한 취재원을 조사하여 사실을 재확인하 여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 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원부족이라기 보다는 신문사의 의도적 왜곡의 경우로 악의적 왜곡기사의 전형이다. 악의적 의도를 가진 신문사에서 많은 경우 사주 혹은 고위 경영자가 하고자 하는 발언이 다른 인사에 의해 행해졌을 때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공정한 사실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 위 '중계방송'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취재라기보다는 사실상 사외 대변

인을 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문기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사제목에서 직접 인용을 남용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자사의 논조를 전달하기 위한 사설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성은 물론 사건 기사에서도 유사한 불공정 보도의 관행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국내 신문들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독자들의 인식은 상당부분 타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 기사 내용의 일부를 제목에 의해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언론학 교재 Smith & O'Connell(1996:125-126)에서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아래 (1)과 같은 직접 주장(direct attribution)보다는, (2), (3)의 예와 같이 간접 주장(indirect attribution)의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 (1) a. Vitamin C prevents colds
b. Lawyer misused funds
c. Tuition will double
- (2) a. Vitamin C prevents colds, study says
b. Client says lawyer misused funds
c. NSU president: Tuition will double
- (3) a. President called liar
b. Smith charged with murder
c. Tuition may double
d. Lawyer accused of misusing funds

(2), (3)에서 사용되는 "study says", "Client says", "NSU president:", "called", "charged", "may", "accused" 등의 어휘는 간접적 주장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기정사실화를 방지하고, 사실의 가능성을 표현하거나, 일부의 주장이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다.

기사제목에 대한 지침서로서 Garst & Bernstein(1933: 119-120)은 일찍이 보도기사가 사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로 사실보다 견해를 표현하는 것의 위험성과 비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예로서 따옴표 제목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John Jones라는 인물이 한 연설에서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the dogs."라는 발언을 했을 경우 아래 (4)와 같이 제목을 쓰지 말아야 하며, 이는 사실로 신문사의 주장이 된다고 강조한다.

(4) United States is Going to Dogs

또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간편한 방법으로 인용부호를 쓰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 독자들은 인용부호에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용부호를 인식하더라도 그 부호가 연설자의 부호인지 기자의 부호인지 알 수 없다고 단언한다. 대신에 아래 (5)와 같이 구체적으로 취재원이나 주어를 밝힐 것을 주문한다.

- (5) a. Jones says nation is going to dogs
- b. Fears that nation is going to dogs

더욱이 Garst & Bernstein(1933: 62)은 (6)에 표현된 바와 같이 기사제목은 단순한 사실적 정확성을 떠나서 내용적, 실질적 정확성(accurate in spirit)을 요구한다.

- (6) "The headline ... must be accurate, not only in point of fact but also in spirit."

Russial(2004: 144, 156)도 마찬가지로 기사제목이 본문의 내용을 왜곡하지는 않는지 철저한 자기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사내용의 발표자나 기관과 관련하여 기사의 리드문이 취재원에 관한 내용없이 작성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제목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이러한 제목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7a), (8a)의 제목들은 (7b), (8b)와 같이 수정하도록 안내한다.

- (7) a. America is a healthier nation, for now
- b. => Americans' health improves, survey finds

- (8) a. New fat substitute poses dangers
- b. => Fat substitute dangerous, group says

물론 이와 같은 방식은 해당 기사가 하나의 연구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전체 사안을 일반화하게 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장치이다.

2.3.1 주어 제시와 미제시의 대조성:

이상에서 지적한 따옴표 제목의 존재 자체도 우리 언론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으로서 문제가 되지만, 따옴표 제목이 우리 언론에서 사용되는 방식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한 신문사의 인터넷판 기사의 따옴표 제목에서 아래 (a),(b)처럼 주어를 밝히는 경우와 (c)처럼 그렇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를 비교하면 자사의 논조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 (9) a. "떠난 고인 붙잡고 아직도 놓지 않는 이들의 착각"
- b. "언소주, 소비자운동 개념 내세워 사이버운동"
- c. 한완상, "노 전대통령의 서거는 '순교'"

이는 (9a),(9b)의 경우는 기정사실화 및 객관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9c)의 경우에는 명시한 주어의 개인 견해로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2.3.2 본문의 내용과의 불일치성:

아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신문기사에서 인용부호를 매우 경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소스제공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경우와 실제 본문에도 없는 내용이 기사제목에 인용부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아래 기사에 나타난 제목에서 인용부호를 쓴 “무능해도 깨끗하다”라는 발언의 소스는 본문에서 단순히 ‘지지층의 평가’로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직접인용 부호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무능해도 깨끗하다"던 정권, 무능하고 부패했다

[조선닷컴] 입력 : 2009.04.01 02:46

[중략]

"무능하지만 깨끗했다"는 지지층들의 평가도 "무능하면서도 부패했다"는 비난으로 변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 보호막으로 기대했던 민주당마저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며 그를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3월 31일 "현 정권이건 전 정권이건 누가 됐든 분명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노영민 대변인도 "의혹이 있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아래 기사는 중앙일보 Joins.com 기사로 "지금은 빚내서 주식 살 때"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해당 기사제목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직접 인용의 내용이 영어 원문이나 번역된 국문에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로 취재원이 발언하지 않은 것을 과도하게 인용부호 처리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 국문 번역기사와 원문 기사의 제목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문 기사에는 본문에는 존재하지 않은 직접 인용을 쓰고, 이에 대한 소스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원문 기사 제목에는 'Investors Should Buy Stocks, Real Estate, Yale's Shiller Says' 와 같이 직접 인용을 쓰지 않은 것은 물론 소스를 밝혀서 예일대 쉐러 교수의 견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부동산을 살 때다."

2009년 5월 7일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에 대해 비판론을 퍼왔던 로버트 실러(사진) 예일대 교수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러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 주택가격 지표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케이스-실러 지수'를 개발한 사람이다.

그는 이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몇 달 전에 비해 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수익비율(PER)이 평균 수준으로 회복 중”이라며 “자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균형잡힌 투자법”이라고 덧붙였다. PER은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숫자가 적어질수록 이익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미국 S&P500 지수의 PER은 3월 10.1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3.9배까지 반등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은 19.4배다. 실러 교수는 특히 “대공황 시기인 1935~36년 주가가 큰 폭으로 뚝 적이 있다”며 “지금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S&P500은 35~36년에 각각 41%와 28% 올랐다가 37년 들어 39% 급락한 바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4일 발표한 3월 잠정주택판매 지수는 전월에 비해 3.2% 상승했다. 실러 교수는 “집값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했다. 그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 혼란이 이어져 주가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원문]

Investors Should Buy Stocks, Real Estate, Yale's Shiller Says

By Jeff Kearns

May 5 (Bloomberg) -- Investors should brave the risk of “economic chaos” and buy stocks and real estate, said Yale University professor Robert Shiller, whose 2000 book “Irrational Exuberance” predicted the market’s collapse.

“I’m less pessimistic than I was a few months ago,” Shiller said of U.S. equities in an interview in New York. “The price-earnings ratio is about average, and by that you might say it sounds like one should be in the market and have a balanced portfolio that has a good share of stocks.”

The Standard & Poor’s 500 Index trades for 13.9 times its companies’ annual profits, up from a 24-year low of 10.1 in March, after the gauge rallied 33 percent since March 9. Its average

price-earnings ratio for this decade is 19.4, according to data compiled by Bloomberg.

Shiller, who helped create the S&P/Case-Shiller home price index, warned in an August 2006 interview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robability” that housing market declines would accelerate and push the U.S. economy into a recession. He said today that an increase in pending home sales in March and February’s drop in properties on the market are “positive” signals for U.S. housing prices.

“Having a good fraction of your portfolio in stocks, not zero, is probably sensible now,” he said. “People should be in real estate as well because that has a chance of rebounding. It has to be about diversification, about spreading risks.”

The S&P 500’s advance from a 12-year low during the last two months may falter because unemployment is rising, he said. Joblessness in the U.S. is projected to have risen to 8.9 percent in April, according to economists surveyed by Bloomberg.

“The big thing is that we don’t know,” Shiller said in an interview at The New Yorker Summit: The Next 100 Days. “We could have a huge rally like the 1933 to 1937 rally. That happened in the middle of a depression so it could happen now.”

2.3.3 악의적 왜곡:

마지막으로 기사제목에서 악의적 왜곡을 감행한 경우로 다음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교생 성추행에 따른 파면 및 해임에 관련된 기사인데, 기사 제목에서는 성추행 교사 4명이 모두 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소개하면서, 정작 본문에는 “전교조 교사가 포함된 4명”으로 보도하고 있다.

교생 성추행한 전교조 교사 4명 결국... [2009년 5월 20일 중앙일보 인터넷]

오도의 의도가 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사 입사 경쟁률과 지원자들의 교육수준을 근거로 할 때, 위의 경우는 단순한 업무 착

오라기보다는 결국 전교조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의 입장에서 전교조 = 성추행의 공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어 보인다. 언론사가 사실 왜곡에 있어 의도성이 있다고 독자들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타당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다음 절에서는 따옴표 제목을 사용하는 정도를 영미신문과 국내신문을 비교하고, 또한 직접 인용부호가 포함된 문장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문화적, 언어적 차이유무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따옴표 기사제목의 만연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인지 혹은 뉴스기사의 일반적 관행인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따옴표 기사제목의 경향이 일부 독자들이 체감하는 바와 같이 과거보다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조사해 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인용표현의 사실성 예측정도에 관한 일반 독자들의 인식의 차이가 조사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3.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 3대 주요 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1면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사제목 중에서 직접 인용을 사용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현재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9년 2월에 발행한 총 24일간의 신문을 검토하였다. 또한 직접 인용의 사용비율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30년 전인 1979년 2월 시점의 동일한 신문의 1면 기사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신문으로 꼽히는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더타임즈(The Times)에 대하여 동일한 두 시기의 1면 기사를 조사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인용표현에 대한 사실성 예측정도를 측정, 비교하기 위하여 인용표현과 비인용표현에 대한 모국어 화자의 직관을 조사, 비교하였다. 이는 동사는 보문절 내용에 관한 사실성 추론의 가능성에 근거해서 사실성 동사와 비사실성 동사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한 것이다 (Kiparsky and Kiparsky 1971). 예를 들어 영어 동사 'know', 'realize' 등의 부류는 아래 (10), (11)과 같이 종속절 내용이 사실임이 전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0) John knew that Canada was the biggest foreign oil supplier to the United States in 2008.
- (11) John realized that Canada was the biggest foreign oil supplier to the United States in 2008.

반면에 'think', 'assume' 등과 같은 동사는 아래 (12), (13)과 같이 종속절 내용의 사실성에 관해 알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전자의 동사류를 사실성 동사(factive verbs), 후자를 비사실성 동사(nonfactive verbs)로 분류한다.

- (12) John thought that Canada was the biggest foreign oil supplier to the United States in 2008.
- (13) John assumed that Canada was the biggest foreign oil supplier to the United States in 2008.

한국어 동사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되는 것은 이미 강범모(1983) 등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영어와 한국어 보문절에서 중요한 차이점은 영어의 경우 동사에 구분없이 'that'을 보문사로 사용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사실성 전제의 유무에 따라 아래 (14), (15)와 같이 '-다/라는 것', '-다/라고'로 구분되어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 (14) 지수는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 (15) 지수는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고 생각했다.

사실성 동사, 비사실성 동사, 그리고 아래와 같이 화자를 표시한 직접 인용의 경우와 화자를 생략한 직접 인용문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 (16)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
(17)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
라고 지수가 말했다.

같은 내용에 대하여 비슷한 수준의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답변을 비교 분석하도록 하였다.

3.2 자료수집 절차

한국 신문기사의 경우 1979년 2월과 30년 후인 2009년 2월 발행 분의 경우 각각 1주일에 1회 휴간을 제외하고 총 24회 발행된 내용을 수집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의 신문에서는 휴간일이 없으므로 모두 28회 발행분을 수집하였다. 국내 신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에서 실제 신문을 참고하였으나, 영미 신문의 경우 2009년 2월 발행분의 경우에만 실물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오레건대학교 도서관 소장 마이크로필름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더타임즈의 경우 노조파업으로 인하여 1978년 12월 1일부터 1979년 11월 12일까지 발간중단 사태를 맞이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레건대학 자료실에는 더타임즈 대신에 런던에서 발행되는 자매지 데일리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로 보충하고 있으며 본 조사도 이를 반영하여 1979년 2월분에 대하여 데일리텔레그래프를 조사하였다. 발간 중단 직전 발행분을 상호 비교한 결과 이 두 신문에서 사용하는 직접 인용 빈도는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음을 밝힌다. 1면의 모든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1면 머리기사의 경우 통상 제목 아래 부제목이 덧붙여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부제목의 자형 크기가 나머지 기사 제목의 평균크기와 같거나 큰 경우 부제목도 하나의 기사제목으로

환산하였다. 추가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더타임즈의 경우 1979년에는 통상적인 대판형식을 발행되는 것이 2004년 11월 1일부로 타블로이드판으로 판형변경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잡지형태로 1면에 제시되는 기사의 숫자가 1, 2개로 국한되어 이전 신문과 유형을 정상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져서 뉴스기사를 취급하는 3, 4면까지 확대하여 조사하여 1979년 2월 발행된 신문의 기사 숫자와 비슷하게 조정하였다.

인용표현의 사실성 조사에서는 한국에서는 경희대학교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 9월에, 미국에서는 오레건대학의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9년 6월에,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강의시간 서두에 담당 강사가 약 5분간에 걸쳐 사실성의 개념을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답변을 취합하였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최대한 객관적이고 자연스러운 답변을 얻기 위하여 영어와 한국어 사실성 비교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영어 버전의 설문지도 제공하여 답을 동시에 취합하였다. 답변으로서 0을 완전한 거짓, 10을 완벽한 사실로 분류하여, 총 11단계의 사실성 정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대한 선입견을 방지하고자 영어예문과 한국어 예문의 순서를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경희대학교에서 총 100개의 답변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외국인 학생 4명, 제1언어 미표기자 2명, 불완전 답변 1명 등 총 7명의 답변을 제외하였다. 오레건대학교에서는 총 105명의 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이 중 영어가 제2, 제3언어인 9명과 언어란에 모국어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명, 불완전 답변 3명을 합하여, 총 24명의 답변을 제외하였다.

4. 분석결과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2월 발행한 한국의 3대 일간지 1면 기사제목에 나타나는 직접 인용의 비율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각각 36%, 40%, 33%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기 뉴욕타임즈, 더타임즈, 워싱턴포스트에 나타난 0.6%, 5%, 0.4%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로서 한국 신문

에 관한 기존의 연구인 박재영(2006), 양승목 외(2006)에서 밝힌 내용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의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등 8대 신문과 미국신문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를 비교분석한 한국언론재단(2007)의 결과를 재확인 시켜 주었다.¹⁾

〈표1〉 국내 신문 기사제목에 나타난 직접인용 비율 [2009년 2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직접인용포함 비율	36%	40%	33%
직접인용 기사제목 수	38	38	34
전체 기사제목 수	105	94	104

〈표2〉 영미 신문 기사제목에 나타난 직접인용 비율 [2009년 2월]

	뉴욕타임즈	더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직접인용포함 비율	0.6%	5%	0.4%
직접인용 기사제목 수	1	12	1
전체 기사제목 수	170	224	242

또한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세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30년 이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미의 3대 신문에는 3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용의 비율이 신문사 별로 각각 0.5%, 2%, 0%로 나타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영국신문인 더타임즈의 경우 2%에서 5%로 2.5배에 이르는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이런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신문의 편집유형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잡지형태의 특집기사의 특성과 관련된 변화로 파악된다. 또한 워싱턴포스트의 경우 0%에서 0.4%로 증가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218개의 기사 중에서 직접인용이 나타나지 않던

1) 한국언론재단(2007: 163)의 연구에서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조사에서 “직접 인용(큰 따옴표)이 아닌 간접 인용(작은 따옴표) 형태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 신문의 제목에 나타나는 작은 따옴표는 직접 인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큰 따옴표 사용시에 나타날 공간적 제약을 줄이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쓰이는 관행임을 밝혀둔다. 다시 말해 기사제목에 큰 따옴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과 달리 제목에 등장하는 작은 따옴표는 직접 인용으로 환산하였다.

것이 2009년의 경우 총 242개의 기사 중에 1회의 직접 인용이 발생되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과거 영미 신문 기사제목에 나타난 직접인용 비율 [1979년 2월]

	뉴욕타임즈	더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직접인용포함 비율	0.5%	2%	0%
직접인용 기사제목 수	1	4	0
전체 기사제목 수	212	198	218

한편, 한 세대 전인 1979년 2월에 발행된 국내 신문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현재의 경향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주요 3대 신문의 직접 인용비율은 조선, 중앙, 동아가 각각 15%, 15%, 2%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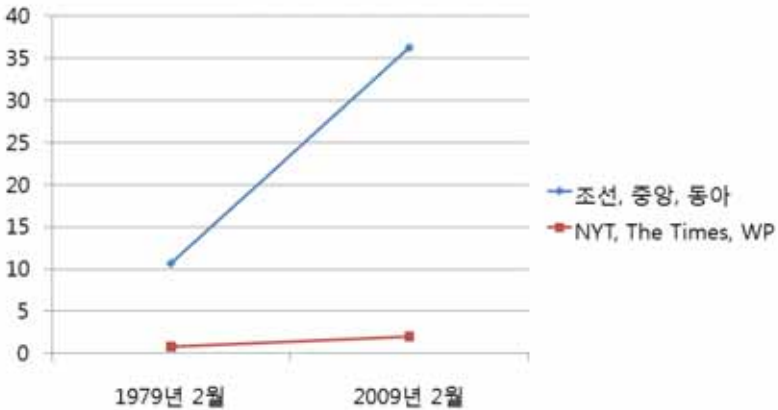
〈표4〉 과거 국내 신문 기사제목에 나타난 직접인용 비율 [1979년 2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직접인용포함 비율	15%	15%	2%
직접인용 기사제목 수	30	24	4
전체 기사제목 수	195	164	167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당시의 영미 신문들에 비해 직접 인용비율이 최소 10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문 자체적으로 두 시기를 비교할 때, 30년 전의 인용비율이 현재의 인용비율보다 최소한 1/2이상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 1979년 당시 2%의 직접인용 비율을 보여 국내 신문 중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며 영미 신문과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었으나, 현재는 무려 33%의 인용비율을 나타냄으로써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극적인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늘어가는 ‘따옴표 기사의 만연’이라는 독자들의 불만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미 신문과 국내 신문의 평균적 추이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신문에서 상대적으로 직접 인용비율의 차이가 매우 확연히 드러남

을 알 수 있다.

〈표5 국내 신문과 영미 신문의 인용비율 추이 (%)〉



마지막으로 사실성 조사의 결과 조사대상의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의 인용표현에 대한 인식정도가 전체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성 동사와 관련된 조사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직접 인용 표현에 대한 사실성 인식의 정도가 사실성동사 및 비사실성동사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신문 제목에서 직접 인용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사실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 문항의 배치는 아래 (18)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실성 동사로 파악되는 ‘know’, ‘realize’ 등과 비사실성 동사로 알려진 ‘believe’, ‘think’ 등과 직접, 간접 인용표현들을 무작위로 구성하여 최대한 순서와 인접성으로 인한 편견을 줄이도록 하였다. (19)의 한국어 예문도 마찬가지로 방식을 채용하였으며, 특히 한국어 대상의 조사에서는 영어문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었으므로 언어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영어동사에 대한 한국어 번역에 해당하는 동사에문을 같은 순서로 배치하지 않도록 하였다.

(18) a. Noam Cohen **believed** that Canada was the biggest foreign

oil supplier to the United States in 2008.

- b. “Canada was the biggest foreign oil supplier to the United States in 2008.”
- c. Noam Cohen **knew** that Canada was the biggest foreign oil supplier to the United States in 2008.
- d. Noam Cohen **said**, “Canada was the biggest foreign oil supplier to the United States in 2008.”
- e. Noam Cohen **realized** that Canada was the biggest foreign oil supplier to the United States in 2008.
- f. Noam Cohen **said** that Canada was the biggest foreign oil supplier to the United States in 2008.
- g. Noam Cohen **thought** that Canada was the biggest foreign oil supplier to the United States in 2008.

- (19) a.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
- b.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 라고 지수가 **말했다**.
 - c. 지수는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d. 지수는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고 **말했다**.
 - e. 지수는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고 **믿었다**.
 - f. 지수는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고 **생각했다**.
 - g. 지수는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취합하여 사실성 순위에 따라 배열한 결과 아래 <표 6>, <표 7>로 정리가 되었다. 사실성 지수는 사실성에 대한 가능한 0-10의 답변들을 산술평균한 결과이다. 이 조사의 결과를 검토, 비교하면 크게 두 가

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번역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성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사실성 동사로 알려진 'know', 'realize'와 비사실성 동사 'believe', 'think'의 순서 및 그 중간을 차지하는 'say'의 사실성 순위가 이들에 대한 가장 가까운 번역에 해당하는 '알고 있다', '깨닫다' 및 '믿다', '생각하다', '말하다' 등이 동일한 상대적 사실성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결론으로 도출된 내용으로는 화자를 명시하지 않은 직접인용문이 화자를 명시한 직접인용은 물론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성 동사보다 사실성 지수가 높게 나타나 사실성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처음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큰 따옴표에 포함된 직접인용이 주어가 생략되어 나타날 때, 주어와 인용동사 'say'를 포함한 직접인용 문장보다는 사실성이 높을 것으로 어느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를 넘어 'know'나 'realize'와 같은 사실성 동사보다 높게 나타나고, 이 결과는 한국인 대학생 대상의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점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미국과 한국의 대학생들이 일반인 평균보다 학력이 더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화자가 포함되지 않은 직접인용에 대한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인식에서 사실성 지수가 사실성 동사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사실은 신문 기사 제목에서 직접인용, 특히 화자를 생략한 직접인용이 어느 정도 일반 독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이는 일찍이 언론학 입문서에서 Garst & Bernstein(1933)이 주장한 대로 일반 독자들은 인용부호에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용부호가 연설자의 부호인지 기자의 부호인지 알 수 없다고 단언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에 해당한다.

〈표6: 영어 사실성 지수〉

어휘 및 형태	사실성 지수	표준편차	사실성 순위
"..."	7.79	3.05	1
Noam Cohen knew that ...	7.53	2.40	2
Noam Cohen realized that ...	6.37	2.43	3
Noam Cohen said, "..."	6.10	2.70	4
Noam Cohen said that ...	5.49	2.86	5

어휘 및 형태	사실성 지수	표준편차	사실성 순위
Noam Cohen believed that ...	4.95	2.49	6
Noam Cohen thought that ...	4.06	2.64	7

〈표7: 한국어 사실성 지수〉

어휘 및 형태	사실성 지수	표준편차	사실성 순위
“...”	9.46	1.44	1
...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8.40	2.16	2
... 다는 것을 깨달았다	8.29	2.04	3
...다고 말했다	7.27	2.22	4
“...”, 라고 말했다	7.17	2.43	5
...다고 믿었다	4.76	2.28	6
...다고 생각했다	4.54	1.98	7

위에서 정리한 설문결과에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 우선 영어에서 사실성 순위 1위를 차지한 화자가 생략된 직접 인용의 경우를 포함한 핵심적 답변의 표준편차가 다소 높게 나온 점이 답변의 신뢰성에 다소 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실성이라는 개념이 이미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설문조사 시에 할애한 5분 동안의 설명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의미론적 개념이라는 점이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나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조사오류의 결과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화자를 포함하지 않은 직접 인용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성 순위는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성 지수가 영어와 한국어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인 대학생 대상 조사에서는 필자가 영어에서 경험한 직접 인용에 대한 예상 밖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충분히 설명을 제시하였고, 특히 한국어 설문 결과 화자가 생략된 직접 인용의 경우 표준편차 1.44를 기록하여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조사오류의 결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위의 <표6>, <표7>에 나타난 영어와 한국어 사실성

지수 비교에서 전체적으로 해당 의미를 가진 어휘에 따라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는 유형에서 유일하게 예외성을 보이는 부분이 사실성 순위 4, 5위를 보이는 화자를 명시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경우이다. 영어의 경우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에 비해 사실성 순위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어의 경우 반대의 순위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 1순위가 화자가 명시되지 않은 직접 인용인 점을 감안하면,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보다 사실성 지수가 높게 나타난 유형에 일관성이 보인다고 파악된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반대로 나타난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예외적 현상에 대해서는 보문소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재 나열한 해당 문장을 살펴 보면,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의 유무와 함께 보문소에서도 ‘-고’와 ‘-라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 직접 인용의 경우 보문소가 일반적으로 ‘-라고’가 나타나며, 특히 구어에서는 이 보문소가 직접과 간접 인용을 구분하는 유일한 표지이다.

- (20) a. 지수는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고 말했다.
 b.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 라고 지수가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고’ 보문소가 비사실성의 표지로서도 기능하는 경우가 아래 (21)과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21a)의 경우 ‘-라고’와 결합하여 비사실성을 보이고, 반면에 (21b)에서 ‘-라는 것’을 사실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라고’에 투영된 비사실성 표지의 기능이 작용하여 순위에 다소나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21) a. 철수는 지수가 바보라고 알고 있다.

2) 주어 ‘지수’의 존재가 (20a)의 경우 인용부분의 앞인 문두와 (20b)의 경우 인용부분 이후에 나타나는 차이는 무시하기로 한다. 이는 직접 인용으로 인한 주어 위치의 자연스러움에 근거하여 배치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사실성 지수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한다.

b. 철수는 지수가 바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소 부자연스럽지만 직접 인용문에 굳이 아래 (22)와 같이 ‘-고’를 사용하면 사실성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과는 영어 및 나머지 한국어 직접, 간접 인용의 유형에 일관성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22) “2008년도 한국이 양고기를 최대로 수입한 국가는 뉴질랜드였다.”
고 지수가 말했다.

5. 결론 및 논의

우리나라와 영미의 대표적인 신문의 기사제목을 비교하고, 인용에 대한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의 사실성 인식 정도를 비교한 본고의 논의를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신문의 기사제목에서 직접 인용이 나타나는 비율이 영미의 신문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30년 전과 현재의 기사제목에서의 직접 인용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영미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 3배에 달하는 증가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따옴표 제목의 만연을 개탄하는 최근의 비판이 근거가 있는 것을 밝혀 주었다. 셋째, 직접 인용에 대한 사실성 인식 조사에서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이 공통적으로 예상과 다르게 높은 사실성 인식 지수를 보임으로써, 직접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제 3자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더 이상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신문이라는 공공미디어에 일반 독자들이 부여하는 공정성을 가장한 자사의 의제를 관철시키는 사적인 도구로서 남용될 위험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현재 따옴표 제목이 만연하고, 직접 인용 표현에 대한 인식에서 독자들이 가지는 사실성 지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신문기사의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를 오도하게 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언론매체에서 이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사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함이라는 오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강범모, 「한국어 보문명사 구문의 의미 특성」, 『어학연구』, 19-1, 1983.
- 김동규, 「선거문화 선도해야 할 언론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 『신문과 방송』3, 2004.
- 김병홍, 「신문 머리기사 제목의 설득 전략 분석」, 『언어와 언어학』39, 2007.
- 박금자, 「따옴표를 읽으십시오」, 『한국일보』11/22, 2001.
- 박금자, 「인용의 남용과 악용」, 『기자협회보』4, 2002.
- 박천일, 「따옴표 뒤에 숨은 언론」, 『조선일보』2/9, 2004.
- 이상길, 「언어의 분열, 분열의 언어 - 1987년 이후의 미디어 권력」, 『당대비평』24, 2003.
- 이재경,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중앙일보』4/9, 2002.
- 이준웅, 양승묵, 김규찬, 송현주, 「기사 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언론학보』51.3, 2007.
- 정여훈, 『신문 제목의 유형 및 그 실현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주형일, 「따옴표 기사는 사라져야 한다」, 『참언론 참소리』227.9, 2004.
- 최영재,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 신뢰도 추락 초래: 참을 수 없는 사소한 저널리즘」, 『신문과 방송』10, 2004.
- 한국언론재단, 『한·미 신문의 기사 형식과 내용』, 2007.

Baskette, Floyd, Jack Sissors and Brian Brooks, *The Art of Editing* (4th ed.).
New York: Macmillan, 1986.

Garst, Robert E. and Theodore Menline Bernstein, *Headlines and Deadlin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3.

Geer, John G. and Kim F. Kahn, “Grabbing Attention: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Headlines during Campaigns,” *Political Communication*
10.2, 1993

Kiparsky, Paul and Carol Kiparsky, "Fact," In *Semantics: An Interdisciplinary Reader in Philosophy, Linguistics and Psychology*, edited by Danny D. Steinberg and Leon A. Jacobvit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rice, Vincent, David Tewksbury, and Elizabeth Powers, "Switching trains of thought: The impact of news frames on readers' cognitive responses," *Communication Research*, 24, 1997.

Russial, John, *Strategic Copy Edit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4.

Smith, Ron F. and Loraine M O'Connell, *Editing Today*,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96.

❖ ABSTRACT

Direct Quotations in Headline and Readers' Perception of Factivity

Jae-Hak Yoon

Major news organizations in Korea are often accused of intentionally conspiring to advance conservative agendas under the disguise of unbiased reporting. Critics suspect that headlines are frequently abused for a certain framing effect. The widespread use of direct quotation is cited as one area of the abuse in headlines. The present study is an attempt to determine whether the criticism is based on facts.

We conducted two separate surveys. First, the headlines on three major Korean newspapers were compared with those on *The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and *The Times*. Then, we collected from Korean and English speakers factivity judgements for the sentences containing a direct quotation. The results confirm previous studies that Korean newspapers engage in a heavy use of direct quotation in headlines. Moreover, the results partially confirm the popular perception that the common use of direct quotation is a recent phenomenon in Korea. Finally, the study finds that both groups of speakers consider direct quotations more truthful than factive sentences.

Key Words

기사제목, 직접인용, 사실성동사, 사실성, 불공정보도
headline, direct quotation, factive verb, factivity, unfair reporting.

논문접수일: 2011. 01. 28.

심사완료일: 2011. 02. 25.

게재확정일: 2011. 03. 10.